

강원도의 화장실 정비 시책

글_로 남 수 강원도청 맑은물보전과 사무관



▲삼척시에 위치한 박규를 상징화한 화장실

▲삼척시에 위치한 조개오양의 화장실

▲삼척시 월선굴물 너와화장실 전경

강원도 소개

모든 국민들이 「한국관광의 1번지」로 인식하고 있는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156만 명이 16,874 km²에 살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지역입니다. 넓은 산림지역과 동해와 인접하고 있어 농·어업이 중심이었으나 자연생태 및 자원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휴식지인 관광여행 목적지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외국관광객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

설악산 국립공원은 강원도의 3개 시·군(속초·인제·양양)에 걸쳐 있으며 1965년 11월에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1970년 3월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1982년 8월 UNESCO에서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최고봉인 대청봉(1,707m)을 중심으로 373 km² 면적에 동물 1,500여종 및 식물 1,0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연간 약 4백만 명의 탐방객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강원도의 전통화장실은 흙이나 목재로 이루어진 벽체에 짚 또는 기와로 지붕을 덮는 형태이며 분뇨는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뭇잎, 재, 짚 등과 섞어 농지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근래에는 수세식화장실에 분뇨는 정화조에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999년 9월~10월 속초시에서 개최된 「'99 강원 국제관광 EXPO」를 계기로 한국관광의 1번지에 걸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화장실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까지 매년 8천여 개씩 연도별로 정비하여 3만 3천여 개소의 공중 및 일반접객업소 화장실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모든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산 화장실 정비

연간 4백만 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설악산 국립공원은 면적이 넓고 산세가 험하여 분뇨수거 처리가 어려워서 대부분 고효율 분뇨정화



▶ 주변 자연환경과 일체감 있게 조성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본 내용은 제2회 한·일 화장실 포럼에서 산악지형 화장실 정비 방안 중 OHP로 발표한 「국립공원 설악산의 화장실 정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편집자)



▲액자와 꽃 등으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남·녀 벽 사이에 수족관을 설치하여 사색의 공간을 연출 ▲장애인 및 다목적 화장실 내부



▲2000년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 선정된 영동고속도로 문막(하) 휴게소 화장실

조를 시설하고 있으며 등산로, 대피소 등에는 자연발효에 의한 분뇨소멸식 화장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에는 등산로(19), 야영장(5), 주차장(4), 소공원(3) 등에 31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하여 화장실문화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 기능 면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하면서 탐방객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보존되어야 하는 국립공원 특성에 맞게 공원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연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화장실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형태의 외관에 목재 및 천연석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고 친 환경적인 화장실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향후 화장실문화 정착방향

공중화장실의 확충 및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청결한 화장실의 유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자문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8개 시·군의 화장실문화 수준 높이기 시민협의회의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자들의 청결사용 의식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정원을 조성하여 자연속 같은 분위기 연출